

# “정보산업 산실 거둬나자”

## 인쇄연합회 창립40주년 및 40년사발간 기념식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곽득룡) 창립 40주년 및 40년사 발간 기념식이 12월 10일 오전 11시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박상규국회산업자원위원장 이석영중소기업청장 김영수기협중앙회회장 유기정세계중소기업연맹총재 민재기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이정일출판문화협회회장 고수근서울조합이사장 김학규경인쇄조합이사장 박충일인쇄연구소이사장 김직승전회장 등 내빈과 전국조합이사장, 300여명의 인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곽득룡회장은 “연합회가 창립된 1962년에는 대부분의 인쇄시설이 수동식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연합회는 앞으로 정보산업의 산실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규위원장과 이석영청장 김영수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40년사 발간에 협조해준 한국하이델베르크 김범식사장, 계성제지 윤복노사장, 아그파코리아 마티아스 아이히혼사장, 성도GL 김남춘회장, 정문정보 정광훈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40년사는 제1편에 인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전반에 대한 의의와 개요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인쇄발달사 편에서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인쇄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제2편에는 연합회의 설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창립 40주년 및 40년사 발간 기념식이 12월 10일 오전 11시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인쇄연합회 40년사.

## 인쇄업 물류비용 과중

인쇄업종의 물류비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업은 1천원의 매출을 올리고 125원을 물류비로 지출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물류비는 매출액의 11.1%를 차지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923개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물류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1년 매출액 대비 물류비는 11.1%로 일본(5.45%)의 2배를 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1.2%, 중소기업 11.1%로 비슷했다. 물류비가 높은 업종은 비금속광물

(17.1%) 조립금속(14.2%) 종이·인쇄·출판(12.5), 물류비의 기능별 비중은 운송비(46.5%) 보관·재고 관리비(41.3%), 포장비(5.9%), 하역비(3.6%), 유통가공비(1%)의 순이었다.

한편 일본의 종이·인쇄·출판 물류비는 6.4%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두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쇄정보유출 차단프로그램 개발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개발됐다. 파수닷컴(www.fasoo.com 대표 조규곤)의 기업용 문서유출방지 솔루션 파수 시큐어 도큐먼트(FSD)를 최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FSD는 디지털 정보를 암호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금지할 뿐 아니라, 허가된 사용자 할지라도 문서 작성자가 설정한 권한 내에서만 문서사용을 허가하기 때문에 인쇄·저장·복사 등을 통한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방

지한다.

파수닷컴이 3년에 걸쳐 자체 개발하고 2년의 상용화 서비스를 거친 디지털 저작권관리(DRM) 기술에 기반한 FSD는 매우 안정적인 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이 안전하고도 용이하게 문서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 해외인력 유치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사업의 올 예산을 늘려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 기술인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해당인력의 왕복항공료와 6

개월 체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500명 이상의 해외인력 도입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15억원에 불과해 150명의 도입을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올해에는 지원액을 22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003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외국 기술전문가 도입규모는 지난해보다 120명 정도 늘어난 27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우선지원분야로 러시아·인도 출신 인력과 함께 내년에는 미국·일본·유럽지역의 전문가 확보에 주력하고 제조벤처와 신기술분야 전문가 발굴을 중점지원키로 했다.

## 대한교과서 삼보에이팩 수출탑수상

대한교과서(주)와 (주)삼보에이팩이 제39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탑을 수상했다.

11월 29일 서울 삼성동 CO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대한교과서(주)(대표이사 황태량)는 3백만달러 수출탑을, (주)삼보에이팩(대표이사 김용률)은 1백만달러

수출탑을 각각 수상했다.

대한교과서(주)는 지속적인 인쇄물수출을 위한 노력으로 올 3/4분기까지의 수출액이 340만달러를 넘었으며 (주)삼보에이팩은 2백만달러를 조금 넘는 수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인쇄관련 장비업체인 (주)옥일기계(대표이사 조정욱)도 1백만달러 수출탑을 받았다.

## 무림그룹 인사 단행

인쇄용지업체인 무림그룹은 11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무림제지에선 고기호 상무가 전무로, 김경래 부장이 이사대우로 각각 승진했다. 신무림제지의 경우 김인중 상무, 박인규 상무, 김석만 상무가 각각 전무로, 이영실 부장이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무림그룹은 제지의 무관세화에 대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 국제자외선산업 UV건조시스템 수출

UV건조시스템 전문 생산업체인 국제 자외선산업(대표 이승규)이 중국 시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회사는 최근 중국 상해에 있는 상해한유채인유한공사에서 가동중인 미쓰

비시 인쇄기의 롱덜리버리부에 이동정착형 UV건조시스템을 제작, 부착해 양질의 PP, 비닐, 금은박지 등을 생산도록 했다.

국제자외선산업의 오프셋 인쇄기 롱

덜리버리부 건조시스템은 UV, 컨트롤박스, 건조시스템, 조사장치, 냉각장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제자외선산업은 기술 개발에 투자, UV 인쇄시 건조상태와 제품의 온도상승을 억제해 준다.

이 회사의 제품은 15년간의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중국, 인쇄용지 반덤핑 예비판정

중국이 한국산 아트지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 2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4개

국의 아트지에 대해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성제지가 31%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판정을 받는 등 국내업체들은 예비판정 덤핑율에 따라 현찰보증금을 내게됐다.

정부는 이번 판정이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에 맞는지 여부를 분석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발표

200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발표된 국가기술자격검정 시

행계획에 따르면 인쇄관련 종목은 기사 2종목(인쇄, 제판), 산업기사 1종목(인쇄), 기능사 4종목(사진제판,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평판인쇄) 등 총 7종목이

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이버시대에 발맞춰 내방은 물론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응시자들의 편의를 제공기로 한 점도 특이할 만하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본지 170쪽을 참고하면 된다.

## 성도GL, 창립 28주년 기념 송년의 밤

(주)성도GL과 (주)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구랍 17일 하얏트호텔에서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고객사 29개사를 초청, 송년 조찬 모임을 갖고 같은 날 임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신라호텔에서 창립 28주년을 기념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송년 조찬 모임에서는 총 5개 부문 우수고객사에 대한 시상 있었으며 임직원 가족을 초청한 송년의 밤에서는 5주년 근속사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Best Leadership Award, Best Team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상 있었다.

특히 이날 가족행사의 취지를 살려 특별 이벤트로 실시한 가족사진 컨테스트와 가족별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으로 즐겁고 유쾌한 송년모임이 되었다.

김상래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2002년 새로운 CI발표, KIPES 2002 성공, ISO9001 인증 획득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임직원 모두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다가오는 2003년에는 제2도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기제품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제 2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수 국무총리를 비롯 중소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앞장서 온 강원도교육청, 충남교육청 등 2개 기관과 철도청 김석희 서기관, 경기교육청 백성현 사무관, 한국수자원공사 윤보훈 부장 등 3명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35개 기관 및 개인이 상을 받았다.

## 신성대 포장시스템과, 서울교육관 개설

충남 당진에 소재한 신성대학 포장시스템과(학과장 박근실)가 서울교육관을 개설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 정규 전문 학사 과정을 마련, 오는 1월 13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성대학 포장시스템과는 지난 1995년 설립돼 포장관련 전문교육을 실시, 관련분야 인재육성에 노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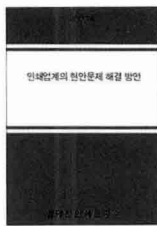
포장시스템과는 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유통과정에서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포장을 공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곳이다. 또한 포장시스템과는 실험·실습을 통한 플라스틱·종이·유리·금속 등 각종 포장재료의 특성과 전기·전

자제품의 파손방지를 위한 완충포장, 식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식품포장, 대형 제품을 위한 중량물포장 등의 포장기술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신성대학 야간 서울교육관(386-8200)은 은평구 역촌동 소재이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인정자들을 무시험으로 24명을 우선 입학시킬 계획이다.

〈문의〉 박근실 교수 : 011-9716-4949, 041-350-1127

## 인쇄연구자료집 7호 발간



대한인쇄연구소는 최근 '인쇄업계의 현안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표제의 인쇄연구자료집 7

호를 발간했다.

박충일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 업계가 인력 자금 물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

혔다. 이번 연구집에는 인쇄업계 기능인력난 해결방안 연구(최정병), 인쇄업계 대외적 홍보방안 연구(오성상), 특수인쇄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연구(남수용), 연포장 업계의 당면과제 및 현안문제 해결방안 연구(이건재), 인쇄업계의 당면과제 및 현안문제 해결방안 연구(박종세) 등이 수록돼 있다.

## 소프트매직 신명서체 세일포트마 인수

출력기 판매 전문회사인 (주)세일포트마(대표 이중화)가 소프트매직의 서체 부분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SM서체, 계유자, 올해자, 갑술자, 정축자와 트루타입 서체, 3분각서체, 신문서체 등 소프트매직에서 보급되던 모든 서체에 대한 판매 및 보수 유지는 (주)세일포트마에서 담당하게 됐다.

(주)세일포트마 이중화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출력기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음을 피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세일포트마도 그런 이유로 크게 위축되었던 게 사실"이라며 "소프트매직에서 인수한 서체 부분에 대한 투자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점 개발하여, 제2의 전성기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세일포트마는 새로이 인수한 서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자체 개발 팀을 꾸리는 등 개발자가 없었던 소프트매직의 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출력기 보급회사인 (주)세일포트마에서 서체 판매를 병행하게 됨으로서 (주)세일포트마는 소프트매직의 전신인 신명시스템즈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장비 보급회사가 서체 판매를 병행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출력기와 서체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두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의 출범은 서체 가격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세일포트마가 판매 부진에 시달리던 주력품목인 모델로 출력기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자사가 취급하게 될 신명서체를 저렴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짙어 출력업체로서는 서체 가격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세일포트마는 1980년에 설립되어 모델로 필름출력기, 현상기, 스캐너,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프리프레스 분야 장비를 공급해오고 있는 회사이다.

## '중기 인력지원 특별법' 초안 마련

중기청은 최근 중소기업복지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 세미나를 열고 이 초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